

12월 28일 라디오서천 1919 방송자료

코너 2 [오. 사. 맛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주제: 적정기술 사례와 충남의 사회적경제 적정기술 활동

- 적정기술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으나, 특히 난방기구, 단열 등 주택설비, 에너지발전, 농기계분야에 적극 활용되고 있다. 몇 가지 적정기술 사례를 소개한다.
- 우선 고효율 화목난방기구를 소개한다. 이러한 적정기술 난방기구에는 드럼통 로켓 스토브, 가스통 로켓스토브, TLUD 화목난로, 이동형화덕, 로켓매스히터, 구들 벽난로, 원통형 벽난로 등 있으며, 가장 기술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최근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벽난로와 개량복합구들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도시에서 사용 가능할 정도로 연기 배출량을 줄이면서 적은 나무 연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실내 난방을 해결할 수 있는 고효율 화목난방 장치들이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나는난로다 및 지역별 워크숍 등을 통해 고효율 화목난방 장치들의 기술적 원리와 제작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 다음은 천연페인트다. 코를 찌르는 페인트는 각종 유독성 화학제품이다. 이는 아토피의 주요 원인 물질이기도 하다. 수입 천연페인트가 거래되고 있지만 값이 비싼 이유로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천연페인트는 기본 지식만 갖춘다면 어린 학생들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다. 종류도 다양해 우유페인트, 석회페인트, 물유리페인트, 소금페인트, 밀가루페인트, 맥주페인트 등 다양하다.
- 2016년 현재 충청남도내 사회적경제 적정기술 활동하는 조직은 8개(조직중 포함)가 있으며, 조합원은 118명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적정기술 관련 조직들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주택, 농기계, 화목난로 등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 우선, 고효율 화목난로, 로켓화덕, 햇빛온풍기 등 화목난로 분야, ② 생태 단열, 주택 단열, 흙집 시공, 천연페인트 등 친환경 주택 분야, ③ 생활 목공 등 농기계 분야를 들 수 있다.
- 시군별로 살펴보면, 홍성군에 3개와 아산시 2개, 공주시, 예산군, 서천군에 각 1곳이다. 서천군에서는 알콩달콩적정기술협동조합이 현재 설립중이다.
-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작은손적정기술협동조합, 얼렁뚱딱 집짓기노동자협동조합, 송악에너지공방협동조합, 아하 홍성생활기술협동조합 등이 대표적이다.

참고자료: 충청남도 적정기술 브랜드를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연구 등

12월 14일 라디오서천 1919 방송자료

코너 2 [오. 사. 맛 (오늘의 사회적 경제 맛보기)]

주제: 협동조합도시 볼로냐

- 협동조합도시 볼로냐는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주(州)의 주도(州都)이다. 협동조합도시 볼로냐를 설명하기 앞서, 우선 에밀리아 로마냐에 대해 소개한다. 이탈리아 20개 주의 하나로, 면적은 2.2만km², 인구는 430만명 정도. 2010년 현재 1인당 GDP는 약 4만달러로 이탈리아 국가평균의 2배, 유럽에서 4번째 부자 지역이다.
- 이 지역의 경제발전 모델을 「에밀리아 모델」 또는, ‘제3의 이탈리아’, ‘유연전문화’라 칭하기도 한다. 유연전문화란, 10인 이하의 중소기업 네트워크가 수요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 에밀리아 로마냐주에는 41만개의 기업이 존재한다. 전체 430만명 인구로 나누어 보았을 때, 5-6명당 1개 기업꼴이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대기업과 대규모 공단도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룩한 것이 되기에 그 중요성이 있으며, 더욱이 8000여개의 협동조합이 지역경제의 30%를 점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볼로냐는 촘촘하게 들어선 낮은 집들과 좁은 골목길, 붉은 빛의 지붕 등 붉은 색은 볼로냐 도시를 상징하며, 700여년이 지난 성곽 같은 건물, 또 건물과 건물로 이어지는 포르티코(회랑), 낮고 더러워도 허물고 다시 짓지 않아 고풍스런 건물 등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 볼로냐에는 약 400여개의 협동조합이 있으며, 볼로냐 중 전체경제의 약 45%를 담당하고 있다. 실업률은 3%에 불과하다. 볼로냐의 상위 50개 기업 중 협동조합 기업이 15개이며, 협동조합이 GRDP의 30%를 점함. 볼로냐에는 세계최고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 페라리가 있고, 명품 가죽브랜드 페라가모 본사가 있으며, 세계최고(最古)의 대학 볼로냐대학이 있다.
- 볼로냐는 중세시대부터 군주제나 공화국의 형태가 아닌 자치형태의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왕족이나 귀족이 없었다. 또 타인의 간섭이나 수직지위 체계를 싫어했기 때문에 협동조합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 서로 평등한 위치를 가지면 정착해 나갈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 이탈리아협동조합연맹인 레가코프의 마티아 마아니씨에 따르면, 볼로냐는 “1000년 전부터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주위 농민에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경작하도록 하였으며, 지금도 큰 땅의 농사를 번갈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풍습이 있다. 경작권을 골고루 나눠주는 형태가 오늘날 협동조합 정신의 기본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에밀리아 모델이 만들어진 배경으로, 협동이 일상화된 지

역, 협동을 해야만 살아가는데 편리한 지역, 협동을 해야만 기업하기가 유리한 지역으로 발전되었으리라 생각할 수 있다.

참고: 김태열, 김현경(2010) 협동조합도시 볼로냐를 가다. 그물코